

풍경 찰각...개성·기법 투영 “렌즈 너머 삶 이야기 담다”

광주사진동호회 18회 정기회원전
내달 1일까지 시청 시민홀심터서
작품 47점 선봬...28일 개막식도

모든 분야가 급변한다. 예술 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비인간 동료예술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 분야 역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기법들이 엄청 다양하게 등장해 구사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진동호회로는 2002년 결성돼 올해 24주년을 맞는 등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사진동호회(회장 정우성)가 그곳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심터에서 열려질 이번 정기회원전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개막된 이번 정기회원전에는 카메라나 휴대폰 등 기기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앵글로 피사체를 잡아낸 형상을 개성을 투영, 마무리한 작품 47점을 출품,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시청 1층에서 전시를 여는다는 대관료 문제 등이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전시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무료로 전시를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대관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다. 지난해 12월 대관 신청을 했다



장상기 작 '봄봄봄'

고 한다. 출품작들은 지난해와 다소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출품회원들이 한결같이 다중촬영을 망라해 자기개성을 살리는 사진 등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려줬다. 더욱이 홈페이지까지 구축돼 접속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사진동호회에는 4000여명이 가입돼 있으나 이중 100여명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직업 또한 천차만별이다. 변호사에서부터 교사, 회사 대표, 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에 포진해 있다. 전시 도록에 실린 회원들 중 변호사나 회사 대표, 전직 사진관 대표 등의 작품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정우성 작 '고독의 시간'



허경재 작 '도담삼봉일출'

이번 전시를 위해 도록도 펴냈다. 도록 표지로는 서원중 회원이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이 수록됐다. 서원중 회원은 과거 신양파크호텔에서 사진관을 운영했고, 현재 조대여고 앞 조대커피현상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은 영광 칠산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마치 tvN 토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상기시켜 눈길을 끌었다. 또 '에트르타(프랑스)'를 출품한 문방진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고, 일본에서 15년을 거주한 이력이 있는 정우성 회장은 밀물 때 함평만(돌머리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 '고독의 시간'을 출품했다.

정우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호평과 혹평에 담금질돼 눈이 열리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정기회원전을 계기로 동호회가 보다 더 진일보한 동호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더 좋은 사진동호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정수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시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오랜 시간 동안 렌즈 너머로 담아낸 삶의 이야기이자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면서 "회원분들의 깊이 있는 시선이 어우러져 이번 전시가 시간과 경험



서원중 작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공존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개막식은 28일 오후 4시 열린다. 식전행사로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 플루트, 포퍼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내달 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7회 정기공연 뮤지컬 '미라클'을 선보인다.

합창 넘어 뮤지컬로 따라가는 '모세의 여정'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미라클' 내달 4일 광주예당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은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7회 정기공연 뮤지컬 '미라클'(Miracle)을 선보인다.

'미라클'은 모세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집트 왕자'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모세의 여정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무대에는 이서은, 이세은, 정호진 등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파 단원들이 주요 배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오준혁 지휘자의 지휘 아래 박기수(연출), 이승희(연기-안무), 정민지(음악감

독) 등 전문 제작진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단원들은 공연을 위해 지난 겨울방학부터 매일 연기, 안무, 노래 연습에 매진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합창단은 현재 본 공연(오후 5시) 티켓 매진이 임박하면서 예매를 하지 못한 시민들과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오프 리허설을 갖는다. 오프 리허설은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선착순 자유석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오준혁 지휘자는 "이번 공연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믿음을 다루고 있다"면서 "봄을 맞이하는 4월,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며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기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4세 이상(2022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관람이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독일 내 한인들 삶 천착...여성들의 시간과 대면

박경란 작가 필력과 세계관 응축된 첫 장편 '안녕, 흥이'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 맞아...가족·시대의 기억 상기

엄마와 딸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름들의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에서 한국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몸과 기억의 전승을 그리는 동시에 한국과 독일, 근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기억의 계보를 역자소설 구조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서사문학이 나왔다.

한국과 독일의 오가며 독일 내 한인들의 삶을 출판과 공연으로 꾸준히 기록해온 박경란 작가의 필력과 세계관이 응축된 첫 장편소설 '안녕, 흥이'(하늘퍼블리싱 71)가 그것으로,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올해 다시 기억해야 할 지금의 이야기이자 가족과 인연을 넘어 기억을 이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및 불안한 시대에 생명력을 위해 읽어야 할 이야기로 한 여성의 삶에서 시작해 한 세대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스토리를 선보인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독일에서 생을 마감한 파독 간호사 이모의 장례식이다. 화자는 그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가족 안에서, 여성의 몸 안에서 말해지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들을 따라간다. 엄마의 삶, 이모의 선택, 딸의 시선이 교차하며,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가족의 기억이 되고, 다시 시

대의 기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과장되지 않으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황과 시간을 차분히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장편은 전쟁과 분단, 이주와 노동의 역사 이면에 있었던 여성들의 노동과 돌봄, 생존의 시간을 피해자의 언어가 아니라 살아낸 존재의 언어로 기록한다.

작가는 비극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장례식의 풍경, 오래된 일기장, 흩어진 대화의 조각들을 통해 독자가 스스로 의미에 닿게 한다. 말해지지 않은 시간, 기록되지 않은 감정들이 문장 사이에 남아 있다. 이 작품은 가족서사이자 기억에 대한 소설이며, 여성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문학적 시도다. 그동안 파독 간호사는 경제 발전을 떠받친 노동력, 헌신의 상징으로 호명돼 왔다. 그러나 그 서사 속에서 개별 여성의 삶은 충분히 말해지지 못했다. 이 장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오랫동안 말해지지 않은 '침묵의 역사'로 남아 있던 개인의 삶을, 한 여성의 몸과 기억을 따라가며 다시 불러낸다. 역사가 아닌 삶으로서의 시간, 기록되지 못한 이름들의 시간을 이 소설은 현재로 소환한다.

이 작품이 주목하는 것은 '영웅적 헌신'이 아니라, 이주 여성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던 일상의 무게와 고독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족과의 단절, 돌봄 노동의 이중 부담, 그리고 노년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파독 간호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삶의 결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 소설에서 '안녕'은 작별의 말이 아니다. 오래 불리지 못했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인사다. 침묵 속에 남겨졌던 삶을 현재로 불러오는 언어이자 한국과 독일, 과거와 현재를 건너는 시간의 작별이며, 희망의 인사다.

오봉옥 시인은 추천의 말을 통해 "침묵은 세대를 건너 계보가 되고, 상처는 지워지지 않은 채 오늘의 삶으로 이어진다. '안녕'이라는 인사는 작별이 아니라 오래 침묵해 온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작가는 2007년 독일로 이주한 이후, 독일 내 이민자의 삶과 기억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가운데 에세이와 인터뷰 기록집을 비롯해 파독 간호사를 다룬 특집 공연, 인종 차별과 근현대 여성사를 주제로 한 희곡 등을 집필하며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